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김봉근*

-
- I. 머리말
 - II. 옥천 지역 산성 조사 및 연구 현황
 - III.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
 - IV. 권역별 축성기술과 의미
 - V. 맺음말: 향후 과제를 대신하며
-

【국문초록】

옥천 지역은 고대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였던 곳으로서, 현재 삼국시대~고려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 46기 분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옥천 지역 산성들에 대한 조사 및 분포, 입지, 규모 등의 현황과 축성기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산성들의 현황과 축성기술을 분석한 결과, 옥천 지역의 산성들은 서화천을 경계로 동·서 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IS를 활용한 가시권 분석에서도 서화천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산성들이 서로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화천을 경계로 백제와 신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또한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된 이성산성이나 옥천 금구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연대를 고려하면, 신라는 5세기 후반에는 이미 옥천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옥천 지역의 산성들은 현재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앞으로 옥천 지역 산성의 실체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산성에 대한 보존 조치와 주요 산성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산성의 정비와 복원, 나아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들은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존과 학술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사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산성의 정비와 복원, 활용을 통해 옥천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옥천, 산성, 축성기술, 서산성, 이성산성

I. 머리말

옥천군은 충청북도 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남쪽으로 충청북도 영동군과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으로 충청북도 보은군과 접해 있다. 지형적으로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 현 옥천읍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옥천 지역은 백제와 신라가 국운을 걸고 전쟁을 벌였던 역사적인 곳이다. 특히, 백제 성왕과 아들 위덕왕의 고토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한강 유역을 점령한 신라 진흥왕의 금강 유역 진출이 충돌하면서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고, 바로 이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백제와 신라

의 격전지였던 곳이다. 그래서인지 옥천 지역에는 ‘진터벌(군대가 진을 치)', ‘진벌마을’, 무중골, 칼대쟁이, 군전마을, 진말냉이 등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현재 옥천 지역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산성은 고분유적과 함께 고대 국가의 영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 가운데 산성은 입지와 규모, 점유 세력에 의한 재사용의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어 축성 주체는 물론 운용시기를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다¹⁾.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 등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옥천 지역의 산성들에 대한 조사 현황과 분포 및 입지, 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축성기술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옥천 지역 산성들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II. 옥천 지역 산성 조사 및 연구 현황

1. 조사 현황

옥천 지역의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충청북도 내의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밀)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는 <표 1>과 같다.

1) 조순흠, 2021, 59쪽.

[표 1] 옥천 지역 산성 조사 현황

유적명	조사 기관	조사 유형	조사 기간	조사 내용
옥천 지역 산성	조선총독부	지표	-	이성산성·성치산성·화학리산성·마성산성·동평산성·삼성산성·서산성·계현성·환산성·국원리산성·이원리산성·저점산성·사양리산성
	청주대학교박물관	지표	1984	서산성·삼양리토성·조천산성·이성산성·저점산성·성치산성·삼성산성·환산성·국원리산성·이원리산성·이백리산성
	옥천문화원	지표	2000~2002	삼성산성·서산성·이백리산성·성치산성·계현성·노고산성·이성산성·저점산성·화학리산성·이원리산성·조천산성·삼양리토성·동평산성·마성산성·마니산성·노구산성·환산성·삼거리토성·지오리산성·늘치산성·국원리산성·용봉산성·지양리산성·인포리산성·막지리산성·지탄리산성·사양리산성·독수리봉산성·도덕봉산성·상중리산성·덕대산성·둔주봉산성·대안리산성·항곡리산성·대정리산성·탑산리산성·답양리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지표	2002~2003	이성산성·성치산성·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삼성산성·삼양리토성·서산성·매봉산보루·계현성·환산성·국원리산성·노고산성·노구산성·이원리산성·조천산성·저점산성·사양리산성

유적명	조사 기관	조사 유형	조사 기간	조사 내용
이성 산성	단국대학교 박물관	지표	1971	-
	청주대학교 박물관	지표	1993	-
	중원문화재 연구원	정밀 지표	2014.08.13. ~2015.04.14	유적 전체 현황 및 주변 유적 파악, 보존·정비계획 수립
	국강고고학 연구소	발굴	2015.10.05. ~2015.11.06.	성벽 조사
	한국선사문화 연구원	시굴	2020.06.08. ~2020.06.18.	성 내 남서쪽 구역 유구 양상 조사
		발굴	2020.06.08. ~2021.12.23.	성 내 시설물 현황 및 구조 조사
	호서문화유산 연구원	시·발굴	2023.03.20. ~2023.12.07.	성벽과 치성, 문지 조사
성치 산성	호서문화유산 연구원	정밀 지표	2017.08.03. ~2018.01.29.	유적 전체 현황 및 수구, 문지 조사
화학리 산성		정밀 지표	2017.08.03. ~2018.01.29.	유적 전체 현황 및 수구, 문지 조사
서산성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	정밀 지표	2023.02.20 ~2023.12	유적 전체 현황 조사

옥천 지역의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실제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1942년에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에는 옥천 지역의 성곽, 고분, 사지 등의 34개소의 유적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산성은 13개소로서, 위치와 소유자, 현황 등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²⁾.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2).

2) 朝鮮總督府, 1942.

〈표 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의 옥천 지역 산성 현황

유적	번호	유형	위치	소유	내용
저점 산성	3	城址	靑西面 桂山里	私有	桂下部落ノ後方東西兩方ノ峯筋二群ヲ成ス直徑約五間ノモノ約十五箇三間ノモノ約五十箇内完全ナルモノ約二十箇其他ハ崩壞又ハ發掘ノ爲メ石櫛ノ露出セルモノ多シ
이성 산성	6	城址	靑西面 桂山里	私有	城名不詳山城里部落ノ東方約四十間小丘上ニ在リ土築ノ山城ニシテ西北ノ部分ハ二重ニ築造セラル土壘ハ僅ニ隆起スルノミ周圍約六百間文獻備考ニ「已上山城在西八里石築内有井」ト記스モノニ 當スルモノノ如シ
화학리 산성	7	城址	安南面 禾鶴里	土木局 所管	城名不詳晚谷部落ノ北方約二百間ニ在リ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三百八十間高サ平均約十尺基部徑約四間殆ド崩壞ス
국원리 산성	10	城址	郡北面 支五里	老故城 國有林	老故城址ト稱ス浦五包部落ノ東北方約三百間ノ山頂ニ在リ天然ノ岩壁ヲ利用シテ半人工ヲ加ヘシ石築ノ山城ニシテ大部分完在ス周圍約百間高サ一間乃至二間
환산 3보루	11	烽燧	郡北面 環坪里 壇岩里	環山ノ一 國有林	環山烽燧ト稱ス環山頂ニ在リ石壘ヲ存ス輿地勝覺ニ日ク「環山烽燧西應懷德縣鷄足山, 南應月伊山」ト
환산 1보루	12	城址	郡北面 二栢里	私有	城名不詳槐木里部落ノ東方約二百間山頂ニ在リ東南方ハ天然ノ岩壁ヲ利用シ西北方ノミ人工ヲ加ヘタル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二百間石壘ハ崩壞ス

유적	번호	유형	위치	소유	내용
망덕봉 보루	14	城址	郡西面 舍楊里	私有	城名不詳舍音部落ノ西南方約四百間大田郡トノ界二在り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五十間沃川郡二面セル部分ハ天然ノ岩壁ヲ利用シ大田郡二面セル部分ハ片平岩ヲ以テ築ケルモ崩壞ス
계현성	15	城址	郡西面 舍楊里	私有	城名不詳長洞部落ノ西方約二百間大田郡トノ界二在り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二百五十間高サ二間乃至三間稍完存ス高麗末紅巾賊ノ亂ヲ避クル為ニ附近人民ノ築造セルモノナリト農城ト稱ス
성치 산성	16	城址	郡西面 銀杏里	私有	上銀里部落西方約三百間古城山頂ニ在り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三百五十間高サ一間乃至三間一部ハ天然ノ岩石ヲ利用ス石壘大部分崩壞ス
마성 산성	19	城址	內南面 大川里 郡西面 金山里	聖珠峰 國有林	城名不詳沃川驛ノ南方約一里峰筋ニ在り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百六十間城壁殆ト崩壞ス
동평 산성	20	城址	內南面 兩水里 郡西面 東坪里	馬岩 國有林	城名不詳沃川驛ノ西南方半里峰筋ニ在り石築ノ山城ニシテ橢圓形ヲ成ス周圍約百七十間城壁殆ト崩壞ス

일제강점기 이후 약 30년 동안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전무하였다. 이후 1971년에 이르러 단국대학교박물관에서 이성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³⁾,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82년부터 실시된 중원문화권 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옥천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

3) 鄭永鎬, 1972.

과 산성, 절터를 중심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⁴⁾.

2000년대에 이르러 옥천 지역의 향토사 연구자들이 산성 37개소와 보루 4개소, 망루 5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⁵⁾. 또한 동일시기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국운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관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옥천 지역 산성 19개소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산성의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유적의 전체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⁶⁾.

2010년대 이후에는 옥천 지역 전체 성곽에 대한 조사보다는 개별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옥천 지역 산성 가운데 가장 많은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산성은 옥천의 동부지역인 청성면의 이성산성이다. 2014년도에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⁷⁾. 또 성치산성과 화학리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2017~2018년에 이루어지면서 유적 전체 현황과 수구 및 문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⁸⁾. 최근 옥천읍에 위치한 서산성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2023년 2월부터 성벽과 문지, 성내 시설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진행 중이다⁹⁾.

이상과 같이 옥천의 지역적 중요성은 물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옥천 지역의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淸州大學校博物館, 1984.

5) 옥천문화원, 2002.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7)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8)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a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b.

9) 서문영, 2023.

2. 연구 현황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옥천 지역은 신라의 고시산군(古尸山郡)과 소리산현(所利山縣), 아동혜현(阿冬兮縣), 굴산현(屈山縣)이 있었는데,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각각 관성군(管城郡), 이산현(伊山縣), 안정현(安貞縣), 기산현(耆山縣)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기산현은 삼년군(三年郡)의 영현이 되었다¹⁰⁾.

이상의 문헌기록과 같이 삼국시대 옥천 지역에 1개 군과 3개 현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군현의 치소성을 비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고시산군의 치소는 삼양리토성을 중심으로 서산성과 삼성산성 일대라는 견해¹¹⁾와 고시산군의 치소를 관산성으로 비정하고 이를 옥천 지역의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 지역 일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라는 견해¹²⁾가 제시되었다. 다음 소리산현의 치소는 이원리산성으로, 아동혜현의 치소를 화학리산성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¹³⁾. 굴산현의 치소는 이성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¹⁴⁾. 최근 발굴조사와 결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굴산성의 개축 기사¹⁵⁾와 관련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

10) 『三國史記』 卷第三十四 雜志三 地理一 尙州 管城郡: “管城郡, 本古尸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利山縣, 本所利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縣眞縣, 本阿冬兮縣, 景德王改名. 今安邑縣.”

『三國史記』 卷第三十四 雜志三 地理一 尙州 三年郡: “耆山縣, 本屈縣, 景德王改名. 今靑山縣.”

11) 車勇杰·趙順欽, 2009, 54쪽.

12) 梁起錫, 2009, 36쪽.

13) 車勇杰·趙順欽, 2009, 74, 84, 94쪽.

14) 車勇杰·趙順欽, 2009, 80쪽.

15) 『三國史記』 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 麻立干) 八年(486년), 春正月,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16)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이 밖에 문헌에는 구타모라새(久陀牟羅塞)와 관산성(管山城), 일모성(一牟城), 사시성(沙尸城), 광석성(廣石城), 답달성(沓達城), 구례성(仇禮城), 좌라성(坐羅城) 등이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 이 가운데 구타모라새와 사시성, 구례성이 현재 옥천 지역의 위치한 산성들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여창이 쌓은 구타모라새를 구례성으로 보기도 하고, 또 구례성을 관산성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 현 옥천읍의 삼성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하고¹⁸⁾, 환산으로 비정하는 견해¹⁹⁾, 관산성 전투의 백제군 진출 경로와 치소의 기능면에서 성치산성으로 비정한 견해 등이 있다²⁰⁾. 다음 관산성의 위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옥천읍의 삼양리토성과 서산성, 삼성산성 일대로 파악하거나²¹⁾, 관산성이 하나의 성이 아닌 보루들의 총칭으로 삼년산성의 전진기지 역할로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²²⁾. 사시성은 신라의 자비 마립간이 474년 백제와의 경계에 쌓은 6개의 성 가운데 하나로서, 옥천 지역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성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시성을 신라와 통일신라 유물이 수습되는 점에서 이원리산성이나 화학리산성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²³⁾.

이상과 같이 옥천 지역 산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문헌에 기록된 군현과 축성기사를 통해 치소성과 성들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

17) 『日本書紀』卷第十九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十五年(554):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 麻立干) 十七年(474년),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五年(554년)), 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

18) 윤성호, 2018, 143-145쪽.

19) 鄭永鎬, 1975, 222쪽.

20) 전영우, 2022, 107, 160-161쪽.

21) 車勇杰 外, 2003, 189쪽.

22) 김병남, 2010, 12쪽.

23) 윤성호, 2022, 37쪽 ; 조효식, 2014, 170쪽.

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고고학적 조사 및 연구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

옥천 지역의 산성들은 옥천읍을 중심으로 군북면과 군서면, 안내면, 동이면, 이원면, 청성면 등지와 대전과 보은, 영동군과의 경계에 위치한 유적을 포함해서 모두 46개소가 확인되고 있다(표 3).

〈표 3〉 옥천 지역 산성 일람표

번호	유적	위치	입지	해발	규모 (둘레)	성벽	유물
1	서산성	옥천읍 서정리	포곡식	197	1025	석축	토기편 기와편
2	삼양리토성	옥천읍 삼양리	포곡식	142	800	토축	토기편
3	삼거리토성	옥천읍 삼양리	테외식	142	300	토축	-
4	삼성산성	옥천읍 양수리	테외식	303	500	석축	토기편 고배편
5	용봉산성	옥천읍 양수리	테외식	437	250	석축	-
6	동평산성	옥천읍 마암리	테외식	405	250	석축	토기편 기와편
7	마성산성	옥천읍 대천리	테외식	509	216	석축	토기편
8	도덕봉산성	동이면 세산리	테외식	407	100	석축	-
9	지양리산성	동이면 지양리	테외식	495	300	토축(?)	-
10	둔주봉산성	안남면 연주리	테외식	384	150	석축(?)	토기편 기와편
11	화학리산성	안남면 화학리	테외식	261	687	석축	고배편 대옹편
12	조천산성	안남면 도농리	테외식	425	460	토축 +석축	-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번호	유적	위치	입지	해발	규모 (둘레)	성벽	유물
13	탑산이산성	안내면 현리	테외식	499	100	석축	-
14	덕대산성	안내면 동대리	테외식	573	150	토축	-
15	인포리산성	안내면 인포리	테외식	366	200	토축	-
16	답양리산성	안내면 답양리	테외식	518	150	석축	-
17	이성산성	청성면 산계리	포곡식	133	1,140	토축+석축	고배편
18	저점산성	청성면 산계리	포곡식	311	1,500	석축	토기편
19	대안리산성	청성면 대안리	테외식	491	100	석축	-
20	이원리산성	이원면 이원리	포곡식	199	652	토축+석축	토기편 기와편
21	지탄리산성	이원면 지탄리	테외식	400	250	토축(?)	-
22	마니산성	이원면 평계리	테외식	639	1500	석축	기와편
23	성치산성	군서면 은행리	포곡식	329	400	석축	토기편
24	매봉산보루	군서면 은행리	테외식	229	70	석축	-
25	국사봉망루	군서면 사양리	테외식	490	30	석축	-
26	계현성	군서면 사양리	테외식	326	262	석축	토기편 기와편
27	망덕봉망루	군서면 사양리	테외식	439	30	석축	-
28	사양리산성	군서면 사양리	테외식	435	155	석축	-
29	상중리산성	군서면 상중리	테외식	430	100	석축	-
30	독수리봉산성	군서면 상중리	테외식	587	300	석축	토기편 기와편
31	환산 1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306	217	석축	
32	환산 2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414	113	석축	
33	환산 3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523	100	석축	
34	환산 4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556	107	석축	
35	환산 5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581	217	석축	
36	환산 6보루	군북면 이백리	테외식	580	82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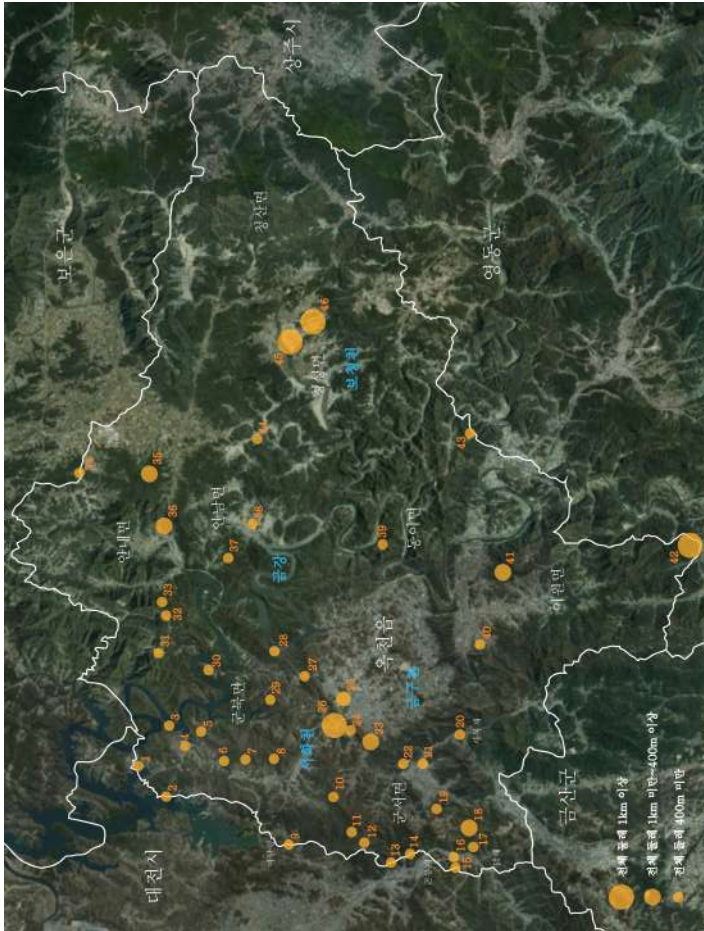
번호	유적	위치	입지	해발	규모 (둘레)	성벽	유물
37	마달령망루	군북면 자모리	테외식	360	30	석축	-
38	노구산성	군북면 자모리	테외식	511	300	석축	-
39	노고산성	군북면 자모리	테외식	410	250	석축	-
40	대정리산성	군북면 대정리	테외식	284	100	석축	-
41	항곡리산성	군북면 항곡리	테외식	344	300	석축	-
42	늘티산성	군북면 지오리	테외식	300	150	석축	-
43	지오리산성	군북면 지오리	테외식	335	150	석축	-
44	국원리산성	군북면 지오리	테외식	282	157	석축	토기편
45	막지리산성	군북면 막지리	테외식	306	250	석축	-
46	석호리망루	군북면 석호리	테외식	121	40	석축	-

1. 산성의 분포와 입지

옥천 지역 산성들은 옥천읍 6개소와 동이면 2개소, 안남면 3개소, 안내면 4개소, 청성면 3개소, 이원면 3개소, 군서면 8개소, 군북면 16개소가 있다. 전체적으로 옥천읍과 군서면, 군북면, 안내면 등 서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옥천 동이면과 이원면의 중남부와 동부인 청성면 일대에 일부 산성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줄기나 금강을 따라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지형과 수계를 기준으로 삼아, 서화천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 지역, 금강 북쪽 지역, 보청천유역, 옥천 중남부의 금강 동쪽 지역 등 5개의 분포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천 지역의 산성의 현황과 과제

- | | |
|------------|-----------|
| 1. 대경리산성 | 24. 삼거리토성 |
| 2. 향곡리산성 | 25. 삼양리토성 |
| 3. 환산 6보루 | 26. 서산성 |
| 4. 환산 5보루 | 27. 지오리산성 |
| 5. 환산 4보루 | 28. 눌티산성 |
| 6. 환산 3보루 | 29. 국원리산성 |
| 7. 환산 2보루 | 30. 석호리망루 |
| 8. 환산 1보루 | 31. 막지리산성 |
| 9. 마달령망루 | 32. 답양리산성 |
| 10. 노고산성 | 33. 탑산이산성 |
| 11. 노구산성 | 34. 덕대산성 |
| 12. 독수리봉산성 | 35. 조천산성 |
| 13. 상흥리산성 | 36. 화학리산성 |
| 14. 사양리산성 | 37. 인포리산성 |
| 15. 개현성 | 38. 둔주봉산성 |
| 16. 망덕봉망루 | 39. 지양리산성 |
| 17. 국사봉망루 | 40. 도덕봉산성 |
| 18. 성치산성 | 41. 이원리산성 |
| 19. 매봉산보루 | 42. 마니산성 |
| 20. 마성산성 | 43. 지탄리산성 |
| 21. 동평산성 | 44. 대안리산성 |
| 22. 용봉산성 | 45. 저림산성 |
| 23. 삼성산성 | 46. 이성산성 |



[그림 1] 유천 지역 산성 분포도

1) 서화천 동쪽 지역

서화천 동쪽 지역 산성들의 분포 양상은 크게 옥천읍을 가로지르는 금구천 북쪽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져 금강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와 금구천 서남쪽의 삼성산부터 용봉, 마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분포한다. 금구천 북동쪽으로 금강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에는 북쪽에서 순서대로 석호리망루와 국원리산성, 늘티산성, 지오리산성, 서산성이 해발 약 127~300m의 산상에 위치하며, 이 산줄기 동쪽의 인접한 구릉에 삼양리토성이 위치한다.

삼성산에서 마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는 옥천읍의 서쪽 지역을 반원형으로 감싸듯 이어지는데, 금구천과 서화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삼거리토성부터 남쪽으로 순서대로 삼성산성, 용봉산성, 동평산성, 마성산성이 해발 약 300~500m에 이르는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2) 서화천 서쪽 지역

서화천 서쪽 지역 산성들의 분포 양상은 서화천 서쪽 대전과 경계를 이루는 식장산 및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독수리봉에서 북동쪽으로 연결되는 산줄기, 환산에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옥천 증약리에서 대전 신상동으로 넘어가는 마달령을 중심으로 북쪽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 대정리산성으로부터 2~3km를 사이에 두고 향곡리산성이 위치하고, 마달령부터 옥천 사양리, 대전 낭월동으로 넘어가는 곤륜재까지의 산줄기에 배치된 산성이다. 가장 북쪽의 마달령망루를 시작으로 남쪽으로 독수리봉산성과 상중리산성, 사양리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곤륜재에서 닭재 사이에는 망덕봉보루와 계현성이 위치하고, 닭재에서 마달령 사이에는 국사봉망루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식장산 산줄기의 동쪽의 말동산에는 성치산성과 그 북쪽으로 매봉산 보루가 위치하고 있다.

식장산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환산성이 위치한 환산산줄기와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식장산에서 이어지는

북동쪽 산줄기에 노구산성과 노고산성, 환산1~6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3) 금강 북쪽 지역

금강의 북쪽 지역의 산성들은 금강의 북안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지리산성과 답양리산성, 탑산이산성, 인포리산성, 둔주봉산성, 화학리산성, 그리고 보은군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덕대산성과 조천산성이 위치한다. 있다.

4) 보청천유역

보청천유역에는 삼국시대 신라의 굴산현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 청산면과 청성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는 현재 『삼국사기』에 기록된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이성산성을 비롯하여²³⁾ 서북쪽으로 약 800m 지점의 산상에 위치한 저점산성, 그리고 보은으로 통하는 교통로 상에 대안리산성이 위치한다.

5) 옥천 중남부 지역

옥천 중남부 지역의 산성들은 모두 4개소로서 북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지양리산성, 지탄리산성, 도덕봉산성, 이원리산성, 마니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분포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천 지역 산성들은 모두 산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이며, 그 입지는 테피식과 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산성으로 명명된 유적들 가운데 포곡식 입지인 서산성과 삼양리토성, 이성산성, 저점산성, 이원리산성, 성치산성 등 6개소의 산성을 제외하면 모두 테피식이다, 보루와 망루로 명명된 유적들은 모두 테피식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23) 『三國史記』新羅本紀: “(炤知麻立干 八年) 春正月,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2. 산성의 규모

옥천 지역 산성들의 전체 둘레를 기준으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는 전체 둘레 1500m에 이르고, 가장 작은 규모는 전체 둘레 30m 가량으로 전체적으로 산성들의 규모는 격차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과 보루의 구분은 유적의 규모, 즉 전체 둘레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옥천 지역의 산성들을 살펴보면, 대안리산성이나 대정리산성은 전체 둘레가 100m 인데 산성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환산 1보루는 전체 둘레가 306m이지만 보루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옥천 지역의 산성들은 유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성과 보루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명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양시은은 고구려 산성 151개소의 전체 둘레를 통계화하여 대형(전체 둘레 3km 이상)과 중형(전체 둘레 1~3km 미만), 소형(전체 둘레 1km 미만), 초소형(400m 미만)으로 구분하고, 초소형에 해당하는 400m 미만의 산성을 보루로 설정한 바 있다²⁴⁾. 향후 옥천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대 국가별 산성을 서로 비교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축성 세력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문헌기록이나 기존 연구 결과로 보아 옥천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백제와 신라의 산성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또한 경주의 명활산성(약 5,000m)과 남산신성(약 4,911m), 충주 대림산성(4,096m), 광주 남한산성(약 8,000m) 등 삼국시대 산성 가운데 전체 둘레가 3km 이상인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가장 많은 산성으로 통계화 한 고구려 산성의 규모 기준에 따라 옥천 지역 산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4) 양시은, 2016, 128-129쪽.

옥천 지역 산성의 규모를 상술한 고구려 산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전체 둘레 3,000m 이상의 대형에 해당되는 산성은 옥천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전체 둘레 1~3km 미만의 중형에 이성산성과 저점산성, 마니산성, 서산성 4개소의 산성이 해당된다. 400m 이상~1,000m 미만의 소형으로는 삼성산성과 삼양리토성, 성치산성, 이원리산성, 조천산성, 화학리산성 등 6개소의 산성이 해당된다. 400m 미만의 초소형은 36개소가 확인되는데, 국원리산성과 노고산성, 노구산성, 늘티산성, 답양리산성, 대안리산성, 대정리산성, 덕대산성, 도덕봉산성, 독수리봉산성, 동평산성, 둔주봉산성, 마성산성, 막지리산성, 사양리산성, 삼거리토성, 상중리산성, 용봉산성, 인포리산성, 지양리산성, 지오리산성, 지탄리산성, 향곡리산성, 탑산이산성, 환산 1~6보루, 계현성 등이 있다.

한편, 초소형 가운데 국사봉망루와 마달령망루, 망덕봉망루, 석호리망루, 매봉산보루 등지에서 전체 둘레 100m 미만의 유적이 확인된다. 특히 망루로 명명된 유적들은 모두 전체 둘레가 30m 정도인데, 이들 유적은 모두 인접한 산성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옥천 지역 산성들의 분포와 입지를 정리하면, 옥천 지역의 산성들은 청산면을 제외한 읍면에서 확인된다. 특히 서남부 지역의 식장산, 환산, 삼성산~마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약 90%의 산성들이 산 정상부에 축조된 테피식의 입지를 보이고 나머지는 포곡식이다. 규모면에서는 전체 둘레가 3km 이상인 산성은 없고, 모두 1.5km 이하의 중·소형의 규모에 해당된다. 그중, 옥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산성들은 옥천의 동부지역인 보청천 유역과 서화천 동쪽 지역, 남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IV. 권역별 축성기술과 의미

현재 연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성면의 이성산성과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군서면의 성치산성 및 안내면의 화학리산성을 제외하면, 축성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곽유적은 거의 없다. 또한 많은 산성들의 성벽이 훼손된 상태이거나 붕괴로 인해 축성기술을 밝히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지표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옥천 지역 산성의 축성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천 지역 산성 축성기술은 축성재료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토축과 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양리토성과 삼거리토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석축성벽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토축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석축성벽에 대한 축성기술을 중심으로 앞서 설정한 권역별 축성기술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서화천 동쪽 지역

서화천 동쪽 지역인 삼성산에서 마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산성과 용봉산성, 동평산성, 마성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성벽의 축성기술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기저부의 조성방법은 알 수 없으나, 일부 잔존구간의 성벽은 장방향으로 치석한 성돌을 바른층쌓기 하였다. 성벽의 기울기는 상부가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잔존하는 성벽은 대부분 거의 수직으로 축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산성의 경우, 성벽의 붕괴로 인해 기저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성벽 잔존구간에서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과 길이 약 50cm로 치석한 성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벽의 단면상에서 확인되는 성돌이 지그재그 형태로 쌓여져 있어 속채움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⁵⁾.



동평산성



마성산성



용봉산성



국원리산성

[그림 3] 서화천 동쪽 지역 산성 성벽

2) 서화천 서쪽 지역

이 권역의 산성들 가운데, 서화천 서쪽 산줄기의 노고산성, 노구산성, 식장산 산줄기에 위치한 항곡리산성과 식장산망루, 독수리봉산성, 국사봉보루, 사양리산성, 망덕봉보루 등 성벽 잔존구간으로 볼 때, 석재를 치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환산 산줄기의 1-6보루 석재를 장방향으로 치석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한편, 이들 산성들은 치석의 형태와 쌓기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성벽은 65° 가량 기울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²⁶⁾.

25) 서문영, 2023, 45쪽.

26) 조순흠, 2021, 79쪽.



망덕봉보루



국사봉보루(조순흠 2023)



노고산성(조순흠 2023)



노고산성(조순흠 2023)

[그림 4] 서화천 서쪽 지역 산성 성벽

한편, 식장산 산줄기 남쪽에 위치한 계현성은 성벽은 석재를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치석한 성돌을 바른층쌓기 하였으며, 조금씩 들여쌓기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식장산 산줄기에서 동쪽에 위치한 말동산에 축조된 성치산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성치산성의 성벽 가운데 기저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성 북쪽과 북동쪽의 성벽 잔존구간을 통해 암반을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성돌을 쌓아올려 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남쪽의 방형의 수구가 설치된 성벽과 서쪽, 북쪽의 성벽 잔존구간의 성벽으로 보아,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연하게 치석한 성돌을 사용하였으며, 상부로 갈수록 조금씩 들여쌓기 하였다. 성돌의 크기는 10~35×20~50cm 가량으로 일정하지 않으면, 다양한 크기로 치석하여 사용하였다²⁷⁾.

27)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a.



[그림 5] 성치산성 수구와 성벽

3) 금강 북쪽 지역

옥천군 내 금강의 북쪽 지역, 즉 북안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들은 훼손과 붕괴로 인해 현재 축성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은 화학리산성과 조천산성 정도이다.

먼저 조천산성의 축성기술은 2002~2003년에 이루어진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성의 평면형태가 동서방향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는데, 성의 동·서 양 끝단은 석축을 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삭토한 토축성벽으로 알려져 있다²⁸⁾. 지금 산성에 올라가면 석축성벽은 붕괴되었으나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화학리산성의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성벽 잔존구간에서 확인되는 축성기술은 화강암과 석영암을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다. 성돌의 크기는 길이 약 20~56cm, 두께 약 8~25cm로 일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크기로 치석하여 사용하였다. 화학리산성에서는 6세기 중엽 이후의 고배 대각편을 비롯하여 경부에 파상문이 돌려진 대용편과 통일신라~고려로 편년되는 토기와 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6세기 중엽에 축조되어 통일신라까지 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⁹⁾.

28)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112쪽.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179쪽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b, 56쪽.



[그림 6] 화학리산성 성벽(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b)

4) 옥천 중남부 지역

옥천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산성들은 대부분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석축성벽의 구간이 남아 있으며, 의 흔적이 남아 있어 석축성벽임을 알 수 있다.

이원리산성은 남문지를 기준으로 서쪽 성벽에서 일부 석축성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쪽 성벽은 협축으로 축조하였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있으나³⁰⁾, 성벽의 붕괴가 심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7] 이원리산성 성벽

잔존하고 있는 석축성벽으로 보아 방형이나 장방형의 성돌을 바른층 쌓기 하였다.

마니산성은 평면형태가 남북방향의 장방형으로 능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크게 돌출시켰다. 남문지로 추정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마니산 정상을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만 성벽을 축조하였고, 동쪽은 천연의 절벽지대를 그대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성벽은 마니산의 기반암인 편마암계 화강암을 채석하여 치석하지 않고 허튼층

3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105쪽.

쌓기 하였다. 전체적으로 내외협축을 하였으나 군데군데 암반이 노출된 부분은 외면만을 편축하기도 하였다. 석축이 끝나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문지가 남아 있다. 성내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들이 확인되고 있어, 성의 운용시기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된다³¹⁾.

5) 보청천유역

보청천유역의 산성들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성산성과 성벽이 남아 있는 저점산성의 축성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이성산성은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에 석성으로 기록되어 있어³²⁾, 석축 성벽으로 인식되거나, 지표조사를 통해 흙으로 쌓은 토축³³⁾ 혹은 토축+석축³⁴⁾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후 2015년 서쪽 성벽의 훼손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초축의 토축성벽에서 토축성벽 외면을 수직에 가깝게 절토한 후 장방형의 성돌을 1겹 쌓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축성벽은 성벽의 진행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기 때문에 성벽 전체가 토축에서 석축으로 개축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토축성벽 내 출토된 고배편 등의 토기로 보아 토축부는 5세기, 서쪽 성벽 내축의 수혈유구가 석축성벽에 의해 폐기되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석축성벽으로 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³⁵⁾.

이성산성에서 서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산 정상부에 저점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저점산성의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으로 긴 삼각형을 이룬다. 성벽은 석재를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는데, 일부 자연암반이 지나는 구간은 암반 자체를 성벽으로 이용하였다. 석축한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서쪽과 북동쪽 성벽의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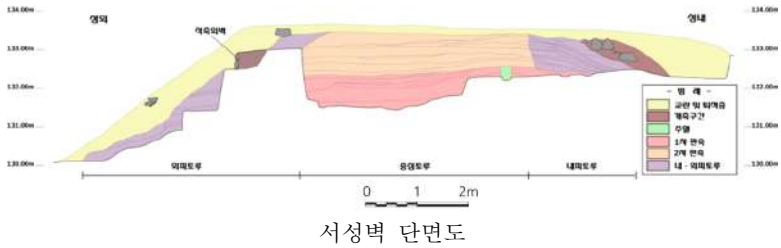
32) 『世宗實錄』地理志 靑山縣: “已城山石城在縣西六里, 周回三百三十七步, 險阻內有井一冬夏不竭有軍倉.”

33) 朝鮮總督府, 1942, 63쪽;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113쪽.

3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37쪽.

35)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서성벽 단면(좌) 및 석축 외벽(우)

[그림 8] 이성산성 서성벽(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확인된다. 특히, 산성에서 가장 높은 북쪽 봉우리의 외곽에서는 4겹의 석축성벽이 확인된다. 가장 먼저 축조된 성벽의 석축 상태가 가장 정연하며, 그 외곽에 쌓은 석축은 상대적으로 엉성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초축 이후 3차에 걸쳐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저점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산성으로 현의 서쪽 9리에 있으며 석축으로 둘레 2,507척으로 성내에 우물이 1개소 있고, 지금은 폐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⁷⁾. 정확한 초축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전기에 이미 폐성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그림 9] 저점산성 성벽

36)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77쪽.

37) 『新增東國輿地勝覽』靑山縣 古跡: “猪站古城, 在縣西九里石築周二千五十七尺內有一井今廢.”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옥천 지역 산성들의 축성기술을 권역별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적이 발굴조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성 기술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성벽의 모습을 통해 일정 부분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옥천 지역 산성들은 서화천을 경계로 서쪽과 동쪽 지역이 서로 다른 축성기술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화천 동쪽 지역의 경우에는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치석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다. 또한 잔존 성벽 대부분은 거의 수직으로 축조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서화천 서쪽 지역의 산성들은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치석한 성돌을 바른층쌓기를 하거나 석재를 치석하지 않고 그대로 허튼층쌓기 한 2가지 양상이 확인된다. 그런데 성돌을 쌓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성벽이 모두 65° 가량 기울어져 축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화천의 동·서 지역의 산성들은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각 산성에서 확보되는 가시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³⁸⁾. 서화천을 중심으로 가시권역을 구분하면, 동쪽의 식장산 산줄기를 따라 배치된 권역과 소옥서쪽의 국원리산성과 서산성, 삼양리토성, 삼거리토성부터 삼성산에서 마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산성들이다.

38) 옥천 지역 산성들의 가시권역을 분석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였다. 고대 산성의 가시권 범위는 적군의 동태 등 군사적 정보 획득에 있어서 유효한 거리인 5~7리(3.5~4.7km)라는 견해(이판섭, 2006.)와 공간고고학 연구에서 반경 5km가 단위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강동석, 2019, 30, 56쪽), 옥천 지역 산성의 가시권 범위를 5km로 설정하였다.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표 2] 서화천 동·서지역 산성 가시권 범위

권역	유적명	가시권 범위
서화천 동쪽 지역	국원리산성	서쪽 환산 일대와 금강 북안 일대
	서산성	동쪽 옥천읍 방면과 남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 및 사목재 일대
	삼양리토성	동쪽 옥천읍 방면과 남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 및 사목재 일대
	삼거리토성	동쪽 옥천읍 방면과 서쪽 식장산과 서북쪽 환산 일대
	삼성산성	서쪽 식장산 산줄기와 마달령 일대
	용봉산성	서쪽 식장산 산줄기와 마달령 일대, 동쪽 옥천읍 방면
	동평산성	서쪽 식장산 산줄기와 동쪽 옥천읍 방면
	마성산성	서쪽 식장산 산줄기와 곤룡재 일대, 동쪽 옥천읍 방면
서화천 서쪽 지역	노고산성	동남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와 동쪽 옥천읍~서북쪽마달령 일대
	노구산성	북쪽 환상 및 마달령 일대
	독수리봉 산성	동남쪽 성치산성과 삼성산~마성산 산줄기, 북쪽 마달령, 서쪽 사목재~남쪽 곤룡재 일대
	상중리산성	동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와 사목재 일대
	사양리산성	동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와 서쪽 대전 방면 및 사목재 일대
	계현성	동쪽 사목재 일대와 북쪽 곤룡재 일대
	망덕봉보루	동쪽 사목재 일대와 북쪽 곤룡재 일대
	국사봉보루	동쪽 용봉~사목재 일대 및 성치산, 남쪽 금산 방면, 북쪽 곤룡재 일대



국원리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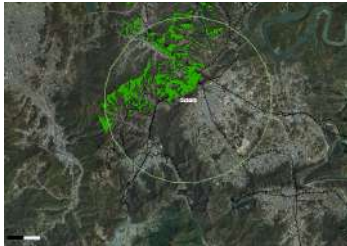
서산성



삼양리토성



삼거리토성



삼성산성



용봉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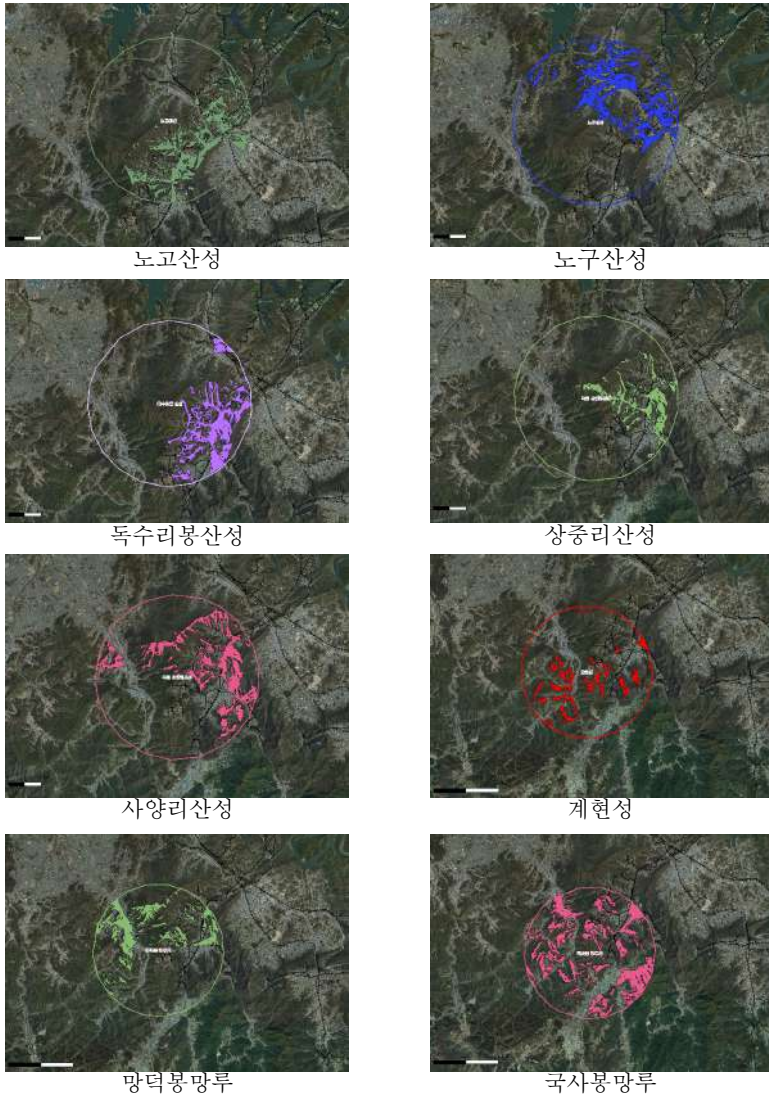
동평산성



마성산성

[그림 10] 서화천 동쪽 지역 산성 가시권 분석도

옥천 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그림 11] 서화천 서쪽 지역 산성 가시권 분석도

서화천 동쪽 지역 산성의 가시권은 주로 서쪽의 서화천 너머의 식장산능선과 군서면, 동쪽의 서산성, 삼양리토성과 옥천읍이 해당한다. 교통로의 경우 삼성산성과 용봉산성에서 마달령 일대, 마성산성에서 곤룡재가 강제되며, 용봉산성과 마성산성에서는 옥천읍을 관통하는 교통로 일대에 대한 강제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달령은 대전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주요 교통로이며, 곤룡재는 대전 및 금산 방면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주요 교통로이다.

서화천 서쪽 지역 산성들의 가시권은 주로 동쪽 삼성산-마성산 산줄기와 군서면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노구산성에서는 북쪽 자모리 및 증약리가, 사양리산성에서는 서쪽 대전 방면까지 가시권에 포함된다. 노고산성과 노구산성, 독수리봉산성에서는 마달령 일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독수리봉산성과 사양리산성, 상중리산성에서는 사목재 서쪽과 곤룡재 동쪽 사이의 주요 교통로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다. 사목재는 옥천읍에서 금산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주요 교통로이며, 곤룡재는 옥천 읍내에서 대전, 금산 방면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주요 교통로이다.

서화천 동·서 지역 산성들의 가시권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화천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산성들은 서로 마주보는 양상으로 가시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교통로로는 이상의 두 권역에서 모두 마달령 일대가 조망 가능하여 큰 차이를 보



[그림 11] 백제와 신라 접경지 모식도

이지 않으나, 곤룡재와 사목재의 감제에서 두 지역의 산성들은 감제 범
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산~마성산 산줄기의 산성들에서는 서
화천 서쪽의 곤룡재와 추부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감제하고 있어 이를
넘어오는 교통로를 감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장산 산줄기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은 서화천 동쪽과 사목재 서쪽 사이의 교통로를 감
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목재를 넘어 곤룡재 방향으로 오는 적에 대한
감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옥천 지역 산성들의 축성기술과 GIS를 활용하여 가시권을 분
석해 보았다. 옥천 지역의 산성들 가운데, 서화천을 경계로 동·서 지
역의 산성들은 축성기술과 가시권 분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성산성이나 옥천 금구리에서 출토된 신라 고분과 출토유물의 연대
를 고려하면³⁹⁾, 신라는 5세기 후반에는 이미 옥천읍으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와 신라가 서화천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을 가
능성이 있다.

V. 맺음말: 향후 과제를 대신하며

본고에서는 옥천 지역 산성들의 조사 및 분포, 입지, 규모 등의 현
황과 축성기술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옥천 지역의 산성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훼
손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옥천 지역 산성의 실체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술
조사와 더불어 유적의 보존과 정비,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맺음말을 대신하여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이다. 그동안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39)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를 통해 확인된 옥천 지역 산성들은 46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옥천 지역의 산성들 가운데는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유적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주요 산성들을 선정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되 기타 산성들은 보존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훼손이 심한 산성들은 대부분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삼성산에서 마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식장산 산줄기, 환산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 환산 보루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옥천 지역 주요 산성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옥천 지역 46개소의 산성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의 수립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산성, 이원리산성, 화학리산성, 저점산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산성들은 모두 옥천 지역에서 확인되는 규모가 큰 산성이자 기존 연구에서 치소성이나 문헌에서 확인되는 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저점산성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산성이자 굴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성산성과 인접하고 있어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학술조사와 보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산성의 정비와 복원이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산성들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고증되지 않은 채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유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양되어야 한다. 학술조사와 연구로 얻어진 자료들을 통해 원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산성의 활용이다. 산성은 그 위치와 입지에서 경관적 요소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산성을 활용함에 있어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옥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성에 대한 학습 기회와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⁴⁰⁾.

그동안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는 옥천 지역 산성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존과 학술조사, 연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사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유적의 정비와 복원, 활용을 통해 옥천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3.11.14,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40) 김봉근 외, 2021, 38~39쪽.

【참고문헌】

- 강동석, 2019, 「남강상류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패턴 - GIS를 이용한 경관고고학적 해석과 네트워크 분석」, 『중앙고고연구』 30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옥천 이성산성 (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 沃川 已城山城』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
- 김병남,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 김봉근·최래인·최범식, 2021,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중원문화연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서문영, 2023, 「옥천 서산성의 조사성과」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 조사 및 향후과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梁起錫, 2009 「管山城戰鬪의 樣相과 影響」, 『中原文化論叢』 12
-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 옥천문화원, 2002, 『沃川 鄕土史資料集』
- 윤성호, 2018, 「『삼국유사』 소재 진성 전투와 진흥왕대의 대외관계」,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 윤성호, 2022, 「5세기 중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 『전북사학』 55
- 이관섭, 2006, 「三國時代 山城의 監視半徑에 대하여」, 『호서고고학』 15
- 전영우, 2022, 「554년 관산성 전투의 배경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107
- 鄭永鎬, 1972,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 『史學志』 6, 檀國大史學會.
- 鄭永鎬, 1975, 「百濟 古利山城考」, 『百濟文化』 7·8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跡調查資料』
- 조순흠, 2021, 「옥천 지역 고대산성의 현황과 활용방안」, 『2021 옥천 산성 학술대회』, 옥천향토사연구회
- 조효식, 2014, 「신라의 성곽」, 『신라 고고학개론 上』, 진인진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沃川 金龜里 新羅古墳群』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옥천 산계리 굴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車勇杰·梁起錫·趙順欽·金珠美, 2003, 『新羅·百濟激戰地』,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 車勇杰·趙順欽, 2009, 「管山城 關聯遺蹟의 現狀과 保存方向」, 『中原文化論叢』12輯.
- 淸州大學校博物館, 1984, 『中原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沃川郡』.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新羅·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查報告書』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옥천 이성산성과 삼국사이의 굴산성』.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의 발굴성과와 학술적 가치』.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a, 『성치산성 - 옥천군 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b, 『화학리산성 - 옥천군 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Abstrac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ountain fortress in Okcheon Area

Kim, Bongge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Okcheon region served as a battleground between ancient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hosting an estimated 46 mountain fortresses believed to have been constructed betwee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Goryeo dynast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distribution, location, siz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in the Okcheon reg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statu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se fortresses, it was observed that the mountain fortresses in the Okcheon region show difference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areas, divided by the Seohwacheon stream. Particularly, GIS-based visibility analysis also indicates a confrontational pattern, where mountain fortresses on either side of the Seohwacheon stream seemingly confront each other,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Baekje and Silla facing off across this boundary.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hronology of artifacts excavated from sites like Iseong-mountain fortress(已城山城) and Okcheon Geunguli-old burial mounds(金龜里古墳群),

it is deduced that Silla had already expanded into the Okcheon region by the late 5th century.

However, the mountain fortresses in the Okcheon region are currently heavily damaged.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eality and history of Okcheon's mountain fortres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ervation measures, conduct academic investigations, and plan research for the major mountain fortresses. Addition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wards the restoration, maintenance, and exploration of utilization methods for these mountain fortresses.

Archaeological studies conducted thus far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and historical value of the mountain fortresses in the Okcheon region. I believe they've paved the way for a renewe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I hope that through future efforts in conservation, scholarly investigation, and research, we can further elucidate the historical reality. Moreover, I aspire that through initiatives aimed at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kcheon can emerge as a city steeped in history and culture.

Keywords : Okcheon(沃川), Mountain fortress, Construction technique, Seo Fortress(西山城), Iseongsanseong Fortress(己城山城)